효과적인 성경읽기의 일곱 가지 비결

7 Habits of Effective Bible Readers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읽기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쫓기는 생활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많은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갈구하는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매일 '성경읽기'와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르도록 돕는 효과적인 일곱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1. 성경읽기 기본 장비를 준비하라!

성경읽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물론 성경입니다. 유용한 성경번역본으로는 개역개정성경,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등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사용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성경번역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읽고 느낀 점과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노트와 필기구도 준비하십시오.

2.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다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5-30분 내외면 괜찮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집 안의 한쪽 구석도 좋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읽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성경읽기와 기도는 고된 훈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될 것입니다.

3.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경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읽기와 기도'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요 4:23-24). 지난 며칠 동안 성경읽기를 등한시했다는 죄책감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우리는 점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4. 나에게 맞는 '성경묵상 프로그램' 찾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매일 저녁 무엇을 요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성경읽기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읽기 계획표 또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성서유니온선교회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일성경」을 제공합니다. 물론 다른 묵상 안내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고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묵상 안내서를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묵상 안내서를 찾는다면 더 이상 '메뉴'를 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겁게 '요리'만 하면 됩니다.

5. 창의적인 성경읽기를 시도해보라!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싫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매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울 수만도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평소에 읽는 성경번역본과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새번역성경, 쉬운성경, 메시지성경 등 다른 영역 성경을 대조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오늘 아침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록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상 깊었던 말씀이나 신앙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의 한 책을 골라 모든 장을 읽고 그 한 책을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성경읽기의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방해요소를 주님께 맡기라.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오래 묵상한 분들에게도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해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통화나 여러가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방해요소는 바로 내 안의 두려움, 절망감, 유혹, 염려 등의 감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방해요소를 제어하거나 피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방해를 하면 품에 안고 함께 성경을 읽거나 전화 통화 후 통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십시오. 생각이 복잡할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보십시오. 방해거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젯거리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7. 경청 훈련을 하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거하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일을 돌이켜보고 우리 안밖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해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은 말씀이 마음에서 새로워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읽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성경읽기 계획을 짜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곧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짧은 교제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